

홍역 의심 환자 신고 방법 및 절차

홍역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**치체 없이 신고해**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고 대상 : 홍역 의사 환자 / 확진 환자
- 신고 시기 : 지체 없이
-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

의사 환자	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, 콧물,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자
확진 환자	<p>홍역 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면서, 실험실 또는 역학적 방법에 의해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</p> <p>▶ 실험실 확진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홍역 특이 IgM 항체 양성 • 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IgG 항체가 4배 상승 • 감체(호흡기) 검체, 혈액, 소변,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<p>▶ 역학적 확진환자 :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경우</p>

※ 임상증상으로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발열과 발진 환자 신고 시 **최근 해외 여행력 및 발진 환자 접촉력 등을 함께 확인**바라며,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고 방법 :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

웹(<http://is.cdc.go.kr>) 등의 방법으로 신고

홍역 의심 환자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시 의료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○ 외래 진료 시

- 발열과 발진을 동반한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 고려
- 홍역 의심 환자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
-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신고와 격리 치료 실시
 - ▶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가택격리 권고
 - ▶ 격리입원 시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격리치료비용 지원 (세부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)

○ 입원 치료 시

- 전염기(발진)이 나타나고 5일까지(동안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)
- 표준감염주의 및 공기매개주의
 - ▶ 공기매개주의
 - 1인용 (음압)병실 사용
 -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
 -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의료진은 홍역 환자 진료 금지

○ 의료기관 종사자

- MMR 2회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과거 홍역 감염력이 없는 경우 본인과 내원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MMR 2회(최소 1회) 예방접종을 권장



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

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<http://nip.cdc.go.kr>
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) 719-6848~52



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



홍역 없는 건강양자세상
의사선생님들의 신속한 신고에서
시작됩니다.